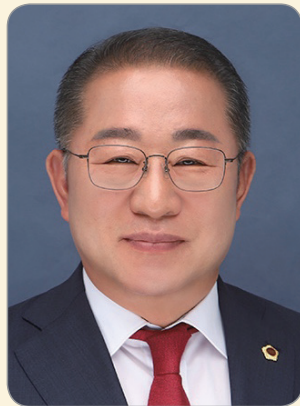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이 한 영 의원



“시민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환경 조성해야...”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책의 방향은...”

“지난 8년 중 6년 연속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 대책?”



시정질문과 답변 내용(일괄질문·일괄답변)입니다.

이 한 영 의 원

국민의힘 서구 제6선거구 월평1·2·3동, 만년동 지역구 출신 이한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위해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이장우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증진시키는 데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지난 26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은 500만 평 산업단지 조성 및 대기업 유치 방안 마련과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지난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듣고자 합니다.

발언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500만 평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기업의 유치와 대기업 유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국토교통부 및 환경부 등의 정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장우 시장님!

이를 위한 대전시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난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전의 둔산지구단위계획이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어 1995년에 준공된 월평동, 둔산동 일원의 택지개발사업이 30여 년이 다 되어가는 동안 건축물은 노후화가 일어나고 지속적인 개발로 인해

도시환경이 급격히 변화되었습니다.

더구나 지난 16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밝히며 연구용역을 거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정비 연구용역 대상에 둔산신도시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여 년의 세월 동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민들이 원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용적률, 층수제한 등의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둔산시외버스 하차장 원상복귀 관련입니다.

둔산시외버스 하차장을 이전 하차장으로 원상복귀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대전시에서는 몇 가지의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본 의원에게는 와 닿지 않기에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로 첫째, 하차장 이전은 공익성과 접근성 및 편리성을 우선 배려하여 이전을 결정하였다고 했고 둘째, 주변상가 등 경기침체 이유는 설득력이 미흡했다고 했으며 셋째, 하차장 주변의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및 시민 다수가 현 하차장을 선호하고 버스 이용객 94%가 외지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차장 이전을 공익성과 접근·편리성을 우선 배려하여 결정하였다고는 하나 누구나 알고 있듯이 상식적으로 버스의 정류장, 정류소는 대부분이 상대식(맞은편)으로 위치가 결정·운영되어 접근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처음 타는 곳과 집으로 돌아와 내리는 곳이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자체가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하차장 이전 결정 당시 주변상가 및 인근 아파트 주민 약 6천여 명의 집단 반대 민원에도 불구하고 강제적, 일방적인 결정이 어떻게 공익성을 띠고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대전시의 주변상가 등 경기침체 이유는 설득력이 미흡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시민이, 주민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원하는 게 어떻게 설득력이 미흡하다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러면 도대체 뭐가 중요한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외버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당시 1일 197회 운영되던 시외버스가 하차장 이전 후 현재 115회로 감소되었으며 정류소 일평균 하차 인원은 2013년 당시 1,968명에서 2022년 7월 기준 627명으로 이는 약 68%가 감소된 것으로 하차장 이전으로 인해 시외버스 이용률도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대전정부청사 내 중소벤처기업부의 이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으로 인근 지역상권의 침체를 가속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회복을 위해 어떠한 대안이라도 마련해야 할 대전시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하차장 주변의 교통흐름 방해와 교통사고 위험 및 다수의 시민이 현 하차장을 선호한다는 의견과 버스 이용객의 94%가 외지인이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외지인의 의견을 들을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전시민이 원하는 의견을 다시 수렴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1일 115회 운영하는 시외버스가 시간당 최대 운영 횟수만 고려해도 약 10대 남짓 하차하는데 이를 마치 시외버스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대중교통을 활성화해야 하는 대전시의 중요정책과도 상반되며 대전시는 교통수요 관리차원에서 승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버스를 늘리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대전시에서 제시한 의견이 오히려 하차장 원상복귀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는 의견으로 생각되며 형식적인 3일 동안의 실태조사 자료와 다수의 시민이 선호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외지인에게 묻는 설문조사 등 근거 없는 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 의원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주변상권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일부 구간을 셋백 하는 등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을 원위치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물순환 선도도시와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과 월평동 일원에 물순환 기능회복 및 빗물 유출 저감을 통해 도시 침수, 하천 건천화, 수질 악화, 열섬현상 완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약 280억을 들여 전임 시장이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17년 환경부가 갑천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함에 따라 관리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대전시의 지정면적은 유성구를 제외한 41,277km²로 도심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을 저감하고자 시작된 사업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시화로 불투수면이 넓게 분포된 둔산권의 물순환 기능회복을 목표로 도로와 공원, 공공기관으로 크게 나눠 사업지역 특성에 맞는 저영향개발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샘머리공원에 식생체류지를 자연형 수로로 연결한 빗물정원과 물놀이시설인 음악

바닥분수 등을 설치하고 주변을 투수포장하여 물순환 테마공원을 조성하였으며 10개의 공공기관 건물과 주차장에는 빗물통과 잔디블록, 투수블록, 식생체류지 등 저영향개발시설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투수성포장과 식생체류지, 식물재배화분, 나무여과상자 등 식생형 빗물저류시설과 침투형 저영향개발시설 중 침투 측구 수로관 및 침투 빗물받이가 곳곳에 설치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 식생형 빗물저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식생형 시설이 보행자 관점에서는 너무 깊고 현재의 수목보호 난간시설이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일부 부족하여 보행 시 주의해서 통행하여야 하며 야간 보행 시에는 잘 구별이 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의 일부 수종은 수고 대비 수관폭이 넓고 규격이 작아 보행안전성 및 시인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주민 통행에 안전사고 위험이 심각해 보입니다.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은 청소 등 유지관리를 전제로 설치한 시설이나 현장을 둘러봤을 때 쓰레기나 각종 오물이 쌓여 있는 시설들이 있어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을 원상복구하든지 아니면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이 추진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과 비슷한 시기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이라 하여 가로수 사이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월평동 및 둔산동 등 대전시 전역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목적으로 외곽 산림 및 녹지에서 생성되는 차고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하여 대기질 개선과 수목에 의한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목식재 현장을 지켜보니 한겨울에 수목식재를 하여 많은 수목이 아직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고사되어 있었으며 담배꽁초나 오물 등의 쓰레기 투척으로 미관을 해칠뿐더러 식재된 수목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식재된 수목으로 인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보행자들 또한 대중교통 승하차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두 사업이 모두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지만 같은 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추진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만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역시 물순환 선도도시와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함을 초래하는 등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과 교육감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전광역시도 도안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탑립·전민지구, 대덕지구, 대별지구, 갑천지구 등 도시 곳곳에서 2021년 7월 기준으로 25개 구역 약 3만 세대의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개선의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지역으로는 학생들이 옮겨가고 원도심은 학생 수가 줄어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개발지역에서는 학교의 신설과 관련된 요구가 급증하는 데 반해 원도심은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지역 또는 학교로의 학생 쏠림현상까지 더해져 다양한 교육갈등과 문제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장기간 통폐합 논란이 재점화된 길 하나로 나누어진 월평동 성룡초와 성천초 학교 사례를 보면 성룡초등학교는 42학급 1,02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데 반해 인접해 있는 성천초등학교는 8학급 87명으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여온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평판과 주변여건으로 인해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로 구분되는 안타까운 상황의 지역갈등이 재현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선호학교와 비선호학교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학교 통폐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의 통폐합은 매우 어렵고 중대한 결정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통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결정의 결과물이 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 화합과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지역과 함께 대전시민으로 성장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도심 내 인구이동 및 학생 수 감소, 지역 내 선호학교 문제 등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으로 그 해법을 접근하는 데 대해서 교육감님은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역의 상생과 발전의 문제는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통폐합한 마산의 구암중학교는 지역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도서관, 주민체육시설, 창원예술학교 등 행정과 교육이 협력하여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런 예와 같이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발생하는 유희부지 내지는 이전적지에 대해서 지역과 교육이 융합된 교육 커뮤니티시설 등의 복합문화시설로 추진 시 시장께서 지원할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 문제입니다.

대전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낮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도 변화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진단과 대책이 엇박자가 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렴도 상승을 위한 노력 분야 의견을 보면 낡은 조직문화, 간부 리더십, 학연·혈연·지연 등 연고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청 2022년 반부패·청렴정책 추진 기본계획의 시사점을 보면 교육감을 포함한 간부공무원의 리더십의 문제와 보여주기식 청렴정책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피로도가 높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청렴도 평가의 내부만족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사 부분일 것입니다.

성과로 경쟁하는 일하는 문화가 아니라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인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 평가가 계속해서 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인사 문제에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구성원들의 보이지 않는 반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이런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지요?

교육감님, 말은 바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곡히 당부드리며, 대전교육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문화와 리더십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는 무엇보다 조직의 사기와 성과에 관련된 의사결정의 질과 행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입니다.

제도 중심의 변화 노력은 조직문화의 간과 또는 조직문화와 제도의 부적합으로 인해 의도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조직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교육감님은 어떤 진단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펼쳐온 제도 중심의 노력들이 가져온 성과가 6년 연속의 최하위권 성적이라면 이제는 조직문화 진단을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과 조직유형에 따른 문화진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직 구성원이 느끼는 조직문화 유형, 의식구조 및 가치, 리더십, 조직운영, 의사소통 등의 점점을 통해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대전시의 정책추진에 있어 의미 있는 방안들이 활발히 논의된 장이 되었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서는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둔산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 원상복귀, 물순환 선도도시, 바람길숲 조성에 대한 문제, 학교 유희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소 대전발전과 환경·교육 문제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이한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관련해서는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은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나노 반도체 그리고 대전이 R&D 성과물에 가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바이오헬스 분야 그리고 항공우주 분야, 최근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된 방산 분야, 이 4대 분야를 대전의 4대 미래전략으로 삼고 적극적으로 육성할 생각입니다.

지역기업과 연구소의 탈 대전을 방지하기 위해 부족한 산업용지를 조기에 확보하고 기업이 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자리가 선순환되는 일류 경제도시 기반구축은 민선 8기의 핵심사업 중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만 예비타당성 통과 문제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문제, 산업단지 관련 중앙정부와의 승인,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관련 정부기관의 원만한 협조를 이루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등과 함께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이와 함께 대통령 공약과 결합시키면서 당위성과 추동력을 확보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국회, 대통령실 등과도 확실하고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서 조속히 본궤도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추진 로드맵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규 산단 후보지에 대한 입지를 긴밀하게 또 아주 신속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일단 현재 대전이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는 사실상 끝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산업용지 중에서 대규모 산업용지 개발이 가능한 땅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또 개발규모와 사업규모 이런 것들을 적극 감안해서 올해 연말 안에 사업 대상지 및 기본구상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 그린벨트 해제 문제,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일련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 산업용지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통령실에도 충분히 건의했고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신속하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도시환경을 반영한 용적률, 층수제한 해제 등 둔산택지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둔산지구는 택지가 완공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주택이 노후화되고 시민들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특히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둔산 전체가 매일 주차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트렌드의 주거환경이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지구단위계획 전면 재검토가 저도 필요하다고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 4월부터 둔산택지개발지구 합리화 정비방안 선행연구를 대전세종연구원을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둔산지구를 비롯한 장기택지지구, 5개 구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17개 지구입니다,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올 하반기에 발주하여 장기택지지구별 재정비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택지지구는 동구에 용운, 대덕에 중리1, 대덕 중리2, 서구 내동, 서구 가수원, 중구 중촌 그리고 1990년대에 했던 동구 판암, 대덕 법동, 대덕 목상, 대덕 석봉, 유성 송강, 서구 둔산2, 중구 문화, 서구 둔산, 유성 원내, 대덕 송촌, 서구 관저에 대한 장기택지 17개 지구에 대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도 함께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연구용역을 중앙정부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둔산지구도 1기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이에 따라 함께 수립하기로 하고 저희도 선제적인 연구용역을 통해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생각입니다.

정부의 용역결과가 함께 나오면 우리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대전시 특성에 맞는 재정비 방향을 도출하고 시민들이 바라는 정주환경으로 둔산지구가 대한민국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획기적인 안으로 재정비 계획을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둔산시외버스정류소 하차장 이전경위 및 대전시 입장입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님 때도 둔산시외버스정류소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도 집단민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 승차인원 설문조사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월평동 지역주민들의 불편 그리고 상권 침체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을 십분 이해하고 조만간 다시 이 지역에 대한 교통 문제, 나아가서 시민이용 문제, 월평동 상권 활성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까지 충분히 수렴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말씀하신 식생형 빗물체류시설의 안전사고 위험성과 원상복구계획 및 유지관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기능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280억이 투입됐습니다만 사실은 애당초 순수한 취지의 목적과는,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다 이렇게 많은 분이 말씀하셨고 또 빗물을 지하토양으로 흡수시켜서 침수를 예방한다는 기능도 그렇게 효과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지금 사업이 바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최소한 모니터링하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 그리고 보행하는 시민들의 불편 문제 또 식생체류지 내 낙엽과 쓰레기들이 쌓여 있어서 제거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특히 모니터링한 결과에 따라서 시민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예산투입이 금년 10월까지 약 26개월 동안 2020년부터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전체를 수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서 본래에 의도했던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기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또 때로는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겨울 식재의 문제점, 또 수목에 의한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2020년도 12월에 강추위가 있었는데 아마 12월 중순에 조정수를 식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수목이 활착되지 않아서 고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아무래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이 문제에 대한 강추위라든지 겨울 식재에 따른 문제점을 세밀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지 않았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고사 수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목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새롭게 보식하겠습니다.

또 함께 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도 적극적으로 정비해서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이 도시 바람길숲이 과거에도 많은 지자체가 이것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 없앤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시 바람길숲 조성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투입됐는데, 하여튼 일단 사업비가 투입되고 조성한 이상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보완하고 불편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추가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말씀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 이전 재배치 등으로 발생한 유휴부지에 지역커뮤니티 구축 등 지원의지가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사실 학교가 신도시 중심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동하고 과거 구도심에 대한 학생자원이 줄어들면서 신도심 지역은 학교 수가 부족해서 난리이고 또 구도심은 학교 교실이 남아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교육감님도 계십니다만 사실 제가 지역구로 있었던 동구에서도 학교를 짓겠다고 용지를 뺏아놓은 구성중학교와 천동중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를 짓지 않음으로써 상당히 많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교육감님께 국회의원 하면서도 말씀 많이 드렸는데 아마 교육청에서는 향후 학생 수 포함한 여건, 학교의 거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측가능한 범위에서 아마 학교 통폐합하는 문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감님께 저희들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말씀드리어서 이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어려운 점,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어려운 점을 함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여러 가지 좋은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부족한 것 있으시면 추후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이한영 의원님께서서는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교육청 청렴도에 대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의원님의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질문과 제언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 내 학생 수 감소, 지역 내 선호학교 문제 등을 학교 통폐합과 같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해법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학교 간 격차 및 학령인구 감소추세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전교육청은 우리지역 실정과 교육여건에 맞고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하여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통폐합이 필요한 지역의 경우 학교 통폐합,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을 위해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여건과

통학환경, 지역특성 등 제반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전교육청은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1년간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적정규모 학교 운영방향을 정하고 중장기적인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통폐합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작은학교 교육력 강화와 미래교육 준비를 위해 금년 8월에 대전형 작은학교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2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작은학교 공동학부제를 도입하여 농촌형 작은학교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중학교는 특성화학교를 운영하여 작은학교의 강점과 지역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적정규모 학교를 위한 학교 이전, 통폐합, 작은학교 활성화 등의 사업추진 시 해당 학부모, 지역주민, 동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서 지역사회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전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진단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측정은 주로 설문조사에 의한 응답자의 주관적인 답변으로 측정평가가 진행되어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나 객관적 실적 등에 대한 인식에 부족함이 있어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평가 주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부터는 주관적 설문인 청렴도와 객관적 실적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청렴도 평가체제를 개편하여 대전교육청은 청렴도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대전교육청이 청렴하다는 내·외부 인식부족을 보강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이 미흡하였고, 특히 내부청렴도는



교직원들의 직무만족도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음에도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이런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청렴정책, 소통하는 청렴활동, 예방하는 청렴실천, 확산하는 청렴문화라는 4대 추진전략을 세우고 16개의 세부과제를 확정하여 2022년 반부패 청렴정책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국장급 이상의 간부들이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부패 청렴의지를 전달하는 고위직 참여 이동 감사관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대전교육청의 청렴인식 제고를 위해 청렴콘텐츠 공모전과 청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렴시민감사관제와 민간명예감독관제 운영강화를 통해 시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은 교직원의 인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학교업무경감 모니터단, 청렴 현장지원단, 청렴강사 인력풀 운영 등 업무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 교육가족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으로 청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질문과 제언을 해주신 이한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한영 의원(1차 보충질문)

본 의원이 시정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우 시장님께서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 관련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업단지 조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500만 평 조성을 통해서 우리 대전시가 먹거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업 유치에 대해서, 특히 대기업 유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고 계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기업을 유치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업에 제공해야 될 산업용지가 확보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 대기업한테는 원형지 개발처럼 원형지를 주고 자체 개발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현재 여건으로 보면 대기업을 바로 유치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택지가 마련이 안 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만 평 부분은 속도감 있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단지 현재 가능한 땅에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유력한 대기업에서 대전에 8천억쯤 투자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희가 그동안 여러 접촉을 해서 조만간, 제 뜻은 그것을 넘어서 포괄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기업이 대전에서 더 큰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괄적인 협의를 하도록 지시했구요.

또 현재 우리나라 대기업과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고 있고 우리 경제부시장님도 하고 있고 국장도 하고 있고 전방위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성과를 내려면 결국은 저희가 대기업을 대전으로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꼭 산업용지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택지와 관련된 경쟁력 있는 문제, 또 대기업이 대전에 왔을 때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대기업이 대전에 왔을 때 거기에 종사하는 많은 근로자들의 주거문제, 또 대전이 그동안 노잼도시라고 했습니다만 대전에서 사는 것이 정말 즐겁고 희망이 있는 도시로 만드는 문제,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향후 민선 8기는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신에 우선적으로 가능한 기업유치는 가능한 기업유치대로 하고 또 우리가 준비되는 대로 산업용지 구축을 신속하게 해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인데 산업용지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전전 시장님 때쯤 출발했으면 지금 좋은 성과를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누군가는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저 때 산업용지 구축에 대해서 일관되게 추진해 가면 그 성과가 아마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기회로 결국 오지 않을까 싶고요.

많은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기업을 옮기면서 그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의 지원과 협력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친화적인 기업도시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우리 전 공직자가 한 팀이 되어서 기업들 잘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이 결국 고용을 늘리고 도시의 부를 키우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한영 의원** 산업단지 500만 평 조성과 맞물려서 대기업 유치 방안도 제대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지금까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많은 중앙정치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지방에 많은, 대기업 포함한 공기업들 지방 이전계획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해서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한영 의원** 그리고 물순환 선도도시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또 택시승강장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빈번하게 다니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만큼만이라도 빗물 식생형 체류지 이 부분을 원상복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 **대전광역시장 이장우** 어떤 경우든 시민이 불편하고 또 시민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면 그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저도 많은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 점검을 하고 시급하게 문제가 있는 곳부터 개선해서 시민들 불편을 최단기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 **이한영 의원** 시민들의 보행이 많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지하철역사 주변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이한영 의원** 시장님 고맙습니다.

교육감님께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적정규모 정책 방향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대전형 적정규모 학교 연구용역을 실시하신다고 했는데 모든 부분이 검토나 용역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정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연구용역을 해서 용역이 끝나면, 그 결과가 나오면 담당하는 교육청 직원이나 전문가들이 의논을 거쳐서 대전형으로 적정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 **이한영 의원** 대부분 보면 용역이나 검토로 끝나고 그 뒤에 진행되는 사항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나 용역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고 검토나 용역이 끝났으면 그것에 대한 실행방안을 정확히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기 때문에 이걸 꼭 저희들이 검토해서 실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이한영 의원** 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도 본 의원이 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교육청의 모든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사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당부드립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다 아시다시피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였는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이행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의 의견을 더 청취하고 들어서 아주 완전한 흠결 없는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한영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감사합니다.

❖ **이한영 의원** 이상입니다.